

저금리·경기침체 ‘타격’… 韓 기업부채 빛 ‘부메랑’ 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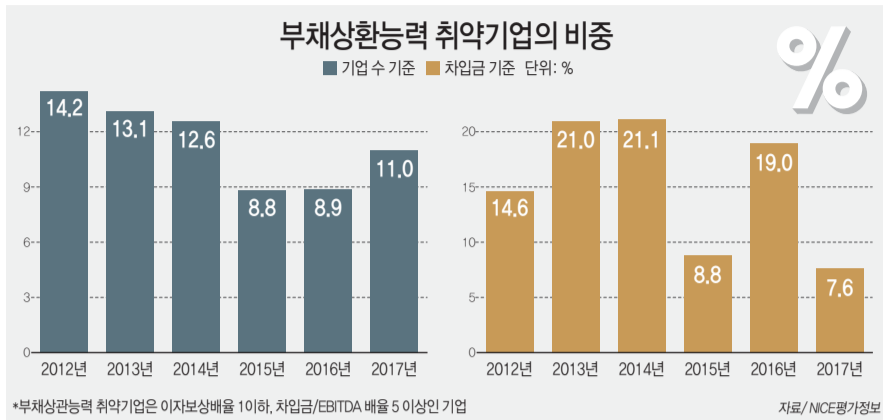
‘R의 공포’ 속 기업에 날아든 경고장

IMF, 세계경제 기업부채 위험경고
올해 회사채 10조6060억원 발행
같은기간 상환액 줄고 발행액 늘어
15대 그룹, 만기도래 23조원 규모

“한국 기업들은 지난 3년여 동안 차입금을 감축해 왔지만 최근의 무역분쟁 심화, 기업의 공격적인 재무정책, 규제위험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침체와 실적 부진으로 국내 경제와 대기업에 경고장이 날아들고 있는 것.

S&P는 “전자 분야의 부진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의 영향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전반적인 대외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며 한국경제 성장률을 2.4%로 낮췄다. 기업들에는 경고장이 날아든다. 무디스는 미국의 고율 관세(최고 25%) 부가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등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에 부정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SK텔레콤의 ‘부정적’ 전망으로 SK그룹의 신용등급에도 흡입이 생겼다. S&P는 M&A 등의 과정에서 공격적인 재무 정책에 우려를 보였다.

특히 빛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다. 삼성·현대차·SK·LG 등 국내 간판 기업들 대부분이 회사채 등을 찍어 투자와 빛 상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한국 비금융 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4분기 기준 GDP 대비 102.2%를 기록했다. 1년 만에 3.9%포인트 상승했다. 경험적으로 경기 둔화(실적 악화)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과도한 부채는 신용리스크의 트리거(방아쇠)가 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경제에 기업 ‘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10일(현지시간)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금융 안정에 대한 단기 리스크는 여전히 낮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금융 여건이 비교적 느슨하다. 그러나 주주와 기업 채무 등 여러 부문의 취약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IMF경고 남 얘기 아니다, ‘R’ 공포에 빛 부메랑 걱정

11일 금융투자협회의 채권거래전용 시스템(K-Bond)에 따르면 올 들어 회사채 순발행액은 10조606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6조4713억원 보다 4조원이 많다. 상환액이 지난해보다 5조8000억원 가량 줄고, 같은 기간 발행액도 1조2400억원 늘면서다.

은행보다 조달 비용이 싸고, 공급자(기업)우위 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실적이 둔화하고, ‘경기 침체(recession)’ 우려가 큰 상황에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상승기가 끝나면서 기업들이 저마다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는데 이면에는 장기적 경기침체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경기침체는 곧 기업실적 저하를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 신용위험 우려는 어느 정도 갖고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장 올해 빛을 갚아야 할 돈도 눈덩이다. 투자금융(IB)업계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15대 그룹 무보증 회사채 규모는 23조원 규모다. SK그룹이 5조3000억원 규모로 가장 많다. 이어 LG 2조4000억원, 롯데 2조3000억원, 현대차 2조2000억원 등이 2조원대의 만기가 돌아온다. GS(1조8000억원), 한화(1조5000억원), 삼성(1조4000억원), 포스코(1조4000억원) CJ(1조원) 등도 1조원대 빛이 도래한다.

전체 기업 회사채 만기는 42조1190억원에 달한다. 기업들이 갚아야 할 돈이 가장 많이 몰린 시기는 1, 2분기다. 각각 10조2003억원, 12조6597억원에 달한다. 이어 3분기 9조9899억원, 4분기 9조2666억원 규모다.

◆자동차 등 우려

“저신용등급의 회사채 발행액이 금융위기 이후 4배 정도로 크게 늘었다. 미국과 유럽 기업의 차입금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화되면, 경기하강이 심화될 수 있다”(IMF 10일 금융안정보고서)

글로벌 성장둔화의 충격이 금융시장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다. 기업부채(회사채 발행)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

한국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시장 참여자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미 지난해 기업부채가 GDP의 100%

를 넘어선 상황에서 올해 저금리를 타 빛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다. 국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도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부진’이란 단어를 썼다. 외국계 투자은행(IB)이나 국제신용평가사·국제기구 등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5%까지 주저앉았다.

산업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의 주요국 제조업 경쟁력 지수(CIP)는 2016년 5위로 중국(3위)에 뒤처졌다. 여기에 반도체, 인공지능(AI), 나노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도 중국의 기술력에 역전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실적추정치가 3곳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104개 상장사의 1분기 영업이익은 23조6300억원이다. 전년 대비 35.7% 줄어든다는 얘기가.

어떤 업종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까. 한국기업평가는 ‘2019년 주요 산업 전망 및 신용등급 방향성 점검’을 주제로 열린 크레딧 세미나에서 자동차, 디스플레이, 소매유통, 신용카드, 대부 등 6개 산업은 부정적으로 꼽았다.

한편 지난해 새로 생겨난 부실채권은 1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4000억원 많았다. 기업 여신 신규부실이 15조6000억원으로 1조원 늘었다.

/김민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봄비 지나고 화사함 뽐내는 벚꽃들

2019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마지막 날인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 벚꽃으로 둘러싸여 있다. /연합뉴스

탈세 혐의 ‘제2 시도상선’ 사태 시선도

▶▶ 1면 ‘1000억대 세금에...’서 계속

서서울CC가 호반건설로 넘어간 이후 골프장 내에서도 어수선한 기운이 감돈다. 최근 서서울CC 운영위원회는 호반건설의 서서울CC 인수 후 그린피(골프장 코스 사용료) 인상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시도상선’ 사태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다. ‘선박왕’이라고 불리는 권혁 회장은 지난 2006년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처하는 것처럼 위장해 22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소득세 2억4000여만원 탈루 혐의만 유죄로 확정돼 법인세 탈세 등 대부분 혐의가 무죄 판결됐다. 코린도기업도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 서서울CC 등 국내 사업을 접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비롯한 총 6개 국가가 2017년에 비해 2018년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반면, 프랑스와 미국은 각각 10%포인트, 13.07%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 상장사의 이익은 줄었는데도 장부상의 법인세 예상액은 8% 가까이 늘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외국인 직접투자 35.7%↓... 정부 “질적 측면은 양호”

투자규모 감소 등 세계 전반 하락세

올해 1분기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전년 동기 대비 3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9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31억7000만달러(약 3조6176억원)로 조사됐다. 실제 투자 도착 기준으로는 26억2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5.9%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연합(EU)의 한국 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 대비 47.3% 감소한 9억90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는

30.5% 증가한 14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일본은 신고 기준으로 전년 대비 31.0% 감소한 2억5000만달러, 도착 기준으로 35.4% 감소한 2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한국 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 대비 78.7% 감소한 1억6000만달러, 도착 기준으로 92.3% 감소한 7000만달러였고, 중국은 신고 기준으로 88.0% 감소한 1억3000만달러, 도착 기준으로 45.5% 감소한 1000만달러였다.

투자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은 신고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21.5% 감소한 12억 1000만달러, 서비스업은 42.5% 감소한

19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이유로 세계 전반의 FDI 하락세와 지난해 1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데 따른 기저 효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세계 부담을 피해 투자를 앞당긴 점 등을 꼽았다.

또한 지난해 글로벌 FDI가 전년보다 19% 감소한 1조200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각국의 대외투자 규모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도 1분기 FDI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투자액 감소에도 1분기 외국인 투자의 질적인 측면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제58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9년 5월 15일~6월 5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4주차는 6월 4일(화) 6월 5일(수)
- (주말반) 2019년 5월 18일~6월 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음션) : ~~300,000~~ → 130,000원
5월 26일(일), 6월 2일(일), 6월 4일(화)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